



[낙농경영] 캐나다, 낙농업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강화 위한 5개년 프로젝트 착수

- 미생물 생태계 관리로 유제품 품질 및 환경 지속가능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 도모



캐나다에서 낙농업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5개년 프로젝트가 착수되었다.

최근 캐나다 구엘프 대학 연구진은 원유생산부터 가공까지 미생물 생태계 관리를 통해 유제품 품질은 물론 낙농산업의 환경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낙농산업 강화를 위한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 연구재단인 자연과학공학연구회(NSERC)를 비롯해 캐나다낙농가협회(DFC) 등 낙농업계로부터 610만 달러(약 73억원)의 자금과 현물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캐나다의 국가 낙농 연구전략(National Dairy Research Strategy)의 일환으로 고품질의 영양가 높은 유제품의 지속가능한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 thecattlesite.com, 2월 18일 >

[가격동향] 스페인 마요르카, 유제품 및 육류 가격 50% 이상 상승

- 공급량 부족, 운송비용 상승 및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가격 상승 견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목장 폐쇄로 인한 공급량 부족으로 스페인 마요르카의 유제품 및 육류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마요르카 유통업체 협회에 따르면, 스페인 본토에서 섬으로 운송되는 유제품 및 육류 가격이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 전반의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최근 한 달간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버터 가격이 3.90유로에서 6.60유로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물 운송비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식음료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출처 : majorcadailybulletin.com, 2월 21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